광주시체육회 소속 여자소프트볼팀. 맨왼쪽은 김정진 코치. 〈광주시체육회 제공〉

아줌마·회사원 뭉친 시체육회 여자소프트볼팀

창단 3개월만에 전국체전 동메달

아줌마·회사원 소프트볼팀이 창단 3개월 여 만에 전국체전에서 실업팀 선수들과 겨뤄 값진 동메달을 땄다.

광주시체육회 소속 여자소프트볼팀은 지난 20일 원주 북부체육공원 소프트볼경기장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경남체육회팀에 져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8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창단된 신생팀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20대 취업준비생부터 어린 자녀를 둔 35살의 주부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3개월 만에 이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14명의 선수 중 최강팀인 명진고 소프트볼팀 선수 출신으로 자녀를 둔 주부·공무원 시험 준비생·회사원 등 8명과 여자야구팀원 5명을 끌어들여 팀을 만들었다.

선수들은 다니던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탓에 주말은 물론, 밤 10시까지 이뤄지는 야간 훈련을 강행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정부의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예산의 일부를 투입, 소프트볼팀 유니폼과 장비를 지원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날씨가 야구 안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남대생 '날씨 빅데이터 경진' 최우수

기상청이 주최한 '2015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전남대학교 학생들(왼쪽부터 송의종·오승원·전성현·이성현·고윤화 기상청장) 〈기상청 제공〉

기상청(청장 고윤화)이 주최한 '2015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환경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5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 전남대학교 통계학과 4학년인 오승원(24)·송의종(25)·전성현(25)·이성현(25)씨의 '날씨에 따른 스포츠 경기 특성 분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이번 대회 광주·전남지역 출전팀 가운데 유일한 수상팀이자 최고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은 기상정보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선수, 경기결과 자료를 활용해 날씨가 안타와 장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기운영과 경기력 증가 방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 분석과 융합 아이디어 등 2개 부문에 전국 300여개 팀이 참가, 최종 11개팀이 결선에 진출, 경합했다. 데이터분석 융합 부문에서는 경북대학교 성유진씨 등 2명의 '웨더 케어보험'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오승원씨는 "기상과 야외 스포츠의 영향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팀원 모두가 좋아하는 야구를 주제로 선택하게 됐다"며 "우리가 만든 빅데이터 분석자료가 실제 스포츠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외국인 환자 돌보는 의료진 도움 주고 싶어"

'병원용 실제 미국영어' 펴낸 전남대병원 김신곤·정명호 교수

의학용어 등 쉽게 정리
유학·여행때 활용 지침서
美 의사생활 고충 담겨

"국내 외에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겪었던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메모해 왔던 것들을 토대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외국인을 진료하는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전남대학교병원 김신곤 명예교수(71·사진 왼쪽)와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57·오른쪽)는 최근 '병원 근무 의사, 약사, 간호사, 기사, 사무원을 위한 길라잡이 병원용 실제 미국영어'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 책에는 외국인들이 진료를 위해 국내병원을 찾았을때나, 또는 해외에 있는 병원에 한국인이 방문했을때 의사소통이 가능할 표현이나 의학용어 등이 쉽게 정리돼 있다. 외국인 환자를 수없이 접한 경험 많은 의사들이 직접 집필했기 때문에 병원 근무자들은 물론, 해외 유학이나 여행 등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계U대회가 열리기 전 광주의 한 병원에서 외국인 방문을 대비해 영어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생전 처음 영어강사를 해봤는데, 어려운 의학용어를 쉽게 정리한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신곤 교수는 197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7년간 레지전트 생활을 했다. 그때 당시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쉬운 단어와 비속어를 알아듣지 못해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배가 아프다'고 말하지, '복통 때문에 왔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며 "의사들이 배우는 의학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탓에 실제 환자들이 사용하는 쉬운 용어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 '병원에서 영어대화 준비', 2장 '병원 영어 대화 실제', 3장 '미국 영어 대화 실력 높이기', 4장 '부록 그리고 영어 상식 높이기' 순으로 정리돼 있다.

부록에는 잘못된 의학용어 발음과 약자에 대해서도 설명돼 있어 해외 유학을 떠나는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다른 저자 정명호 교수도 "오랜기간 필요성을 느껴왔는데, 짜임새 있는 '교본'을 만든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가 정리한 2장 '병원 영어대화 실제'는 원무과를 시작해 각 과 외래, 신체검사와 치과, 심전도, 내시경실, 약국, 입·퇴원 수속 등 병원 방문시 모든 부서에서 주고 받는 '실제 영어 대화'를 담았다.

김신곤 교수가 전남대병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1998년 정명호 교수는 병원 최초로 '외국인 진료소장'을 맡았고, 지난해까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베타랑이다.

"90년대 외국인 환자를 상대하면서 저는 물론, 동료 의료진들도 고충이 많았죠. 또 광주와 전남에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환자도 늘었어요. 제가 가진 경험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미 제자들을 위한 의학영어 교재를 만드는 등 책을 3차례나 펴냈었다. 이번에 김 교수와 함께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보태 보다 더 짜임새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신곤 교수와 정명호 교수는 "우리 한국의 의사들이 너무 어려운 영어단어를 배우다 보니 막상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무엇보다 후배 의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일보 취재팀 '5·18언론상' 수상

광주일보 취재팀이 22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열린 '5·18 언론상' 시상식에서 취재보도 부문 상을 받았다. 왼쪽부터 취재팀 박기웅·백희준·김형호·이종행 기자. 맨오른쪽은 심사위원인 호남대 김기태교수.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깊어가는 가을, 폐선된 기찻길에 시·음악이 흐른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오늘 오후 6시
남광주역 푸른길서 한마당 행사

깊어가는 가을, 폐선된 기찻길에서 시인과 작가들이 모여 추억을 떠올린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조진태·사진)는 23일 오후 6시 남광주역 푸른 길에서 시와 산문, 음악이 곁들여지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고영서 시인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최기종 시인의 '그 옛날 기차'를 낭송으로 막이 오른다. 임지형 동화작가는 '청색 머리띠'라는 산문을 낭송하고 백애송 시인은 '가을이 굴러간다'를 낭독한다. 김경윤·김진수·이상인 시인은 각각 '내 마음의 맹골수도', '벤또論', '섬진강 노을'을 낭송한다.

민족예술단 '내벗소리' 신경환 단장은 푸른길 공원을 수놓는 피리 연주로 한마당의 분위기를 띄운다.

소설가들도 낭송 대열에 참여한다. 차노휘, 김현주, 전용호 작가는 각각 '운행구간', '저편의 무희', '사이렌 소리'를 낭독한다.

문의 062-523-7830.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美 교과서 동해 표기 공로
피터 김 광주서 순회 강연

미국 50개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표기하도록 법 개정을 이끄는데 적극 나섰던 피터 김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 대표가 지난 14일 광주 화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6일까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돌며 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함으로써 미국 전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피터 김씨는 강연을 통해 19세기까지 국내·외 지도에 '조선해'나 '동해'로 표기됐던 동해가 일제 강점기 일본이 국제기구에 '일본해' 표기를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사실 등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알리기 위해 미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동해' 이름이 지워진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당시 빼앗겼던 정당한 권리들을 100여년 가까운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고 올바른 근현대사 정립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최희동(전남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임현경씨 아들 석인군 윤태영·정해경씨 딸 소희양=24일(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스칼라티움 1층 오렐리아 홀.(당일 오전 11시 염주체육관 버스 출발)

▲김의현·김월순씨 아들 경기(금호타이어)군 오세빈·김인자(옥과농협)씨 딸 민하양=24일(토) 낮 1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붐웨딩홀 2층 더모던홀.

▲고(故)이원모·조순자씨 아들 병천군 강강원·이성은씨 딸 해라양=24일(토) 낮 12시 영광대교회 본당.

▲이민래(쉐보래)·양승희(효천초 교장)씨 아들 세영군 남상엽·정미양씨 딸 연희양=25일(일) 오후 1시50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컨벤션 3층 알루체홀.

종친회

▲해남윤씨 광주 종친회(회장 윤광현) 정기총회=24일(토)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동수 수기동 명성예식장 062-225-1001.

▲진주강씨 종회(회장 강원주) 수은 강항선생과 광양수월정 학술세미나=28일(수) 오후 2시 광양시청 대강당, 당일 오전 9시 종회관 앞 출발 062-228-3368.

동창회

▲대촌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희수·3회) 제9회 한마음 체육대회=24일(토) 오전 8시 모교 운동장, 문의 사무국장 박창기(8회) 010-5604-6685.

▲광주 북성중학교 총동창회 제40회 한마음대축제=24일(토)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광주 북성중학교 잔디구장(우천시 체육관) 062-523-1300.

▲광주 동초등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24일(토) 오전 11시 광주 동초등학교 운동장.

▲제38회 일고인 한마당=25일(일) 오전 9시 광주제일고등학교 운동장 062-527-1955.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모집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부음

▲박백자씨 별세 김삼(오칼라 한인장로교회)·명숙·양희·진희·혜정씨 모친상=발인 24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401호 故이찬술 님 (남/77세)
子/子婦 : 이금철/한효수, 금태/이정란, 금희/조영희
• 발 인 : 10월 23일
• 장 지 : 극성 옥과 선영 • 연락처 : 227-4383

402호 故최준영 님 (남/81세)
子/子婦 : 최재필/김은영, 재민
女/壻 : 최금란/이찬솔, 영주/이민호
• 발 인 : 10월 23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4

101호 故홍석희 님 (여/68세)
子/子婦 : 이정태/김민혜, 정균
女/壻 : 이태란/안동진
• 발 인 : 10월 23일
• 장 지 : 강진 병영 선영 • 연락처 : 227-4385

102호 故한두주 님(남/59세)
子 : 한만호 未亡人 : 최희주
女 : 한민영, 민예
• 발 인 : 10월 23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6

마음까지 편안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 의 (062)227-4000